

[종합]

범여 후보 단일화 내주초 최대 고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및 통합 논의가 급주말과 내주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양당은 이번 주부터 풀릴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선 일정상 늦어도 다음주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정치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대선후보 등록은 오는 11월25일, 9일 현재 불과 16일을 남기고 있다.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는 공식적 또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단일화 방안은 후보 간 TV토론과 여론조사 등으로 단일화까지 최소 2주는 걸리기 때문이다.

또 후보등록 후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나 TV토론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현실적인 제

TV토론·여론 조사 최소 2주 시일 촉박

신당·민주당 원샷 통합 공감속...연정 가능성도

약과 후보등록 기탁금 및 선거인쇄물 비용 등 수억달러에 이르는 선거자금도 양당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이미 민주당 측에서 통합과 관련 50%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등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통합보다는 후보 단일화가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대부분

이어서 후보단일화와 연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후보단일화 나아가 통합 협상이 다음주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신당 정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없는 만큼 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당 위상과 세를 고집하지 않겠다. 대쪽 양보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도 "내년 총선만을 생각 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몇몇을 제외하고는 후보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세

를 이뤄가고 있다"며 "신당 측이 민주당에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양당 내 의견통일 과정이다. 신당은 세력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세력통합으로 갈 경우 내년 총선을 감안한 당내 지분문제와 관련한 교섭정리가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일단 세력통합을 배제한 채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과 공동정부 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원내 의원들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뿐만 아니라 세력통합까지 포괄해 협상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원내외 사들은 통합에는 극렬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 설

공기업 이전지역 인재 채용 확대 기대 크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기업 등이 이전지역 인재채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이전이 예정된 57개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엔 해당지역 인재채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35개 기관은 해당지역 출신의 채용규모를 최근 3년간 평균 8.0%에서 내년까지 13.2%로 높이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들도 가점제나 인턴 채용, 추천권 추가배부 등을 통해 이전지역 출신을 우대하기로 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사학 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이전지역 인재 채용을 현행 4.2%에서 25%로, 정보보호진흥원은 2.5%에서 10%로, 한국농촌공사는 10.4%에서 12%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추천전형시 해당지역 대학에 추천권을 추가 배부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 확대는 혁신도시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청년실업 완화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특히 심각한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기업 등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건물 이전만으로는 지방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 이전기관의 완전한 지방토착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이전지역 인재채용 확대는 이전기관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지방에 접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지역 인재 채용이 전시효과를 노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대선 D-39, 비전과 정책 대결 벌여라

제17대 대선에 3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은 혼란스럽다. 후보간 비전과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무소속 출마로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후보들은 오는 25~26일 중앙선관위 등록을 앞두고 있으나 정국은 변칙과 구태로 얼룩지고 있다. 정당정치와 정책 대결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면서 승리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선 때마다 정치문화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를 뿌려 버리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권은 탈당과 합종연횡, 후보 흠집내기, 지역주의 재현 등 온통 진흙탕 싸움이다. 국민들은 새 정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혼돈 정국을 틈타 함몰 간 정치인과 지탄을 받았던 정삼배들까지 속속 부활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이다.

범여권은 지리멸탈한 모습이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자들은 후보 단일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말만 내세울 뿐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30%대 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탈당과 합종연횡, 후보 흠집내기, 지역주의 재현 등 온통 진흙탕 싸움이다. 국민들은 새 정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혼돈 정국을 틈타 함몰 간 정치인과 지탄을 받았던 정삼배들까지 속속 부활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

한국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2차 유엔총회 투표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아시아 그룹을 대표하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뽑혔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이어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유엔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이번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수임을 통해 유엔 산하기구의 위급국 뿐만 아니라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 신설된 평화구축위원회(PBC) 위원국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돼 다자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와 사회, 개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주요기관의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는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18개국이 새로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운명의 날 '여수 코리아' 위하여

'파리 BIE 총회 국민응원단' 220명, 22일 출발

2012 세계박람회 개최국이 결정되는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유치를 응원할 국민참가단이 2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달 8일부터 이날까지 모집한 국민참가단은 총 220여 명으로 오는 22~24일 한국을 출발해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집결한다.

이들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국을 결

정하는 27일 BIE 총회장 주변에서 거리응원을 하며 '브라보 여수'를 외치길 고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민참가단이 BIE 회원국 대표들에게 여수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가단에는 총 경비 중 1인당 40만 원이 지원된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정보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정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고하는 李

'수세→공세 전환' 내일 정국구상 밝힐 듯

위기 극복을 위한 장고에 들어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오는 11일께 기자회견을 하고 정국 구상의 결론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사무실인 견지동 '안국포럼'으로 출근했으나 10시께 기자들을 따돌린 채 시내 모처로 향했다. 이 후보는 당초 이날 잠실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형근 최고위원과 윤석용 장애인위원장을 대신 보내고 자신은 시내에서 정국구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9일 "이 후보는 오늘과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내 모처에서 당 내외 인사들과 만나 현재의 정국상황을 논의하기로 하고 혼자 생각할 시간도 충분히 가질 것"이라며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민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이 후보는 현재의 수세국면을 공세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 후보의 가장 큰 고민은 박 전 대표의 '비협조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이후 박 전 대표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박 전 대표의 뒷집만 지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 후보가 계속 박 전 대표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제오 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한 것이나 이 후보가 8일 직접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것은 향후 있을 박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을 예고했다는 주장이다. 반발의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과격 변신 曁

캠프 발족... '모함·모략 세력과 타협 없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9일 대선출마 선언 이틀 만에 5개팀으로 구성된 대선캠프를 띄우고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략기획팀·정책팀·홍보팀·조직팀·공보팀 등으로 꾸려진 대선 캠프를 구성했다. 이 캠프는 이 후보가 대선에 열혈단신 뛰어들 때만인지 정당 선대위에 비해서는 단촐했다. 이 후보 캠프의 사령관 격인 전략기획팀장에는 강삼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며 정책팀장에는 윤홍선, 홍보팀장에는 이흥주, 조직팀장에는 김원석, 공보팀장에는 이영덕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첫 선거대책회의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함하고 모략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또 "국민이 이회창과 우리를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해 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며 "저를 총재라 부르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측근인 이흥주 홍보팀장이 오전 라디오에 출연, "이회창 후보는 지지율이 팽팽하면 이명박 후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미를 묻자 "전장에 나온 장수가 중간에 포기 하겠느냐.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라"면서 "다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는 항상 잃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접과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로 올라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오면서 3가지 구호 '발로 뛰자, 아래에서 위로, (미래의 밝은) 창을 열자'를 생각했다"면서 스스로 구호의 앞 부분을 선포하는 등 예전과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선 및 재·보선 '광주·전남 선거부정감시단' 발족

광주시 선관위와 전남도 선관위는 17대 대선 및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선거 D-40 일인 9일 광주와 나주, 순천 등지에서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광주 83명, 전남 2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12월 19일 선거 당일까지 후보들의 유세지나 선거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감시단은 이날 행동강령을 통해 ▲위법 행위 예방 ▲조사권의 신중한 사용과 엄정한 법 집행 ▲제보의 신속한 처리 ▲개인 정보 보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치우침 없는 공정한 감시 등을 다짐했다.

광주 감시단원들은 발대식을 마친 뒤 광주공원 '사랑의 식당'에서 무료 배식 봉사활동과 환경 정화활동을, 전남 4개권역(나주·순천·장흥·무안) 감시단원들은 가두 홍보를 펼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9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이 광주시 남구 시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선서를 하고 있다. /*위경림기자 jrwi@kwangju.co.kr

'일하지 않는 무능 공무원 퇴출'

화순군 전남 첫 '삼진아웃제' 도입

경고→재교육→공직 배제

화순군이 전남도 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화순군이 능력 있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마려한 인사혁신 안은 인사평정 횟수를 종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인사 평정자에 직원들의 신상을 가장 잘 아는 담당(계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평정 여하에 따라 성과 상여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예산절감이나 기업유치 등에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평정 특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화순군은 인사 평정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

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2회 누적시 부서 조정 및 재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3차에도 개선 가능성이 없으면 공직에서 완전 배제하게 된다.

이밖에 직원 숫자가 적은 면이나 읍사무소의 경우 전 직원이 타부서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몰라운드(플레이어)시스템도 구축했다.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 삼진아웃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인사안으로 도입, 실시키로 한 것은 화순이 처음이다"며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충분한 연구를 했고 직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빛日만평

- 김중두



'하늘이 두쪽나도 대통령 할란다'